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Korean Studies

K학술확산연구소사업단

반역자들의 종교 :

심문 기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종교사

한승훈 교수





전체 목차

01	강의 개요		04
	• 강의 목표 • 주요 학습지점 • 강의 방법과 일정		
02	강의 목차		08
03	강의 교안		11
04	기타 학습요소		42
05	강의 전문(국문)		47

강의 개요

강의 목표

- 조선시대의 반역 사건을 종교사적, 비교사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 조선시대 반역자들의 심문기록을 통해 당대의 저항 정치 및 종교 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 반역자들의 현실인식과 지향이 한국 종교의 언어를 통해 표현된 방식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평가한다.

주요 학습지점

본 강좌는 기본적으로 대학원의 한국학 전공자 혹은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선후기 종교사를 반역자들의 심문기록을 통해 살펴본다는 구체적인 강의 주제가 말해주듯이 강의 내용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 강의 수강생들에게는 본격적인 강의 내용 학습에 앞서 조선후기의 역사나 종교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매주 영상 강의에 앞서 주차별 학습목표와 차시별 학습목표가 제시된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내용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비교사 및 문화사적 관점이 적용되는데, 이는 교수자의 강의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당대의 시공간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차별로 제공되는 서술형 문제는 공통적으로 수강생들의 공부가 영상 강의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작성된 것으로 주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 방법과 일정

본 강좌는 교수자의 강의를 중심으로 총 10주에 걸쳐서 진행된다. 매주 약 20분 내외의 강의 영상이 총 4차시 제공되며, 강의 후에는 퀴즈가 읽기자료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강의 내용을 환기하고 그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수강생들이 조선후기 종교문화와 저항정치에 관해 서로의 시각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강의 목차

01	종교사와 심문기록	1 종교사란 무엇인가 2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기록 3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4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02	조선후기 변란의 연대기	1 전쟁과 반정의 시대 2 대기근의 시대 3 도참비기의 시대 4 민란의 시대
03	종교적 반역자들	1 술사들의 반란 2 신승과 요승 3 이단적 선비들 4 무당들의 묵시종말론
04	예언과 예언서	1 근대 정감록과 조선후기 예언서들 2 예언서의 형식들 3 예언의 역사적 변형 4 예언서의 혁세적 변용
05	진인출혈설의 형태와 변형들	1 진인, 건국자 혹은 찬탈자 2 영웅신화로서의 진인출혈설 3 진인출혈설의 패턴과 효과 4 진인출혈설의 변형들



강의 목차

06	반역자들의 점복과 주술	1 점괘와 파자 2 진인의 사주팔자와 왕의 관상 3 점성술과 혜성 4 귀신 부리기와 기운 살피기
07	반역자들의 의례	1 결의의식과 입문의례 2 천제와 산제 3 기복의례와 혁세의례 4 반란의 의례화
08	국왕에 대한 저주	1 저주와 역모 2 궁중 저주사건 3 제주 삼성혈의 저주 4 왕의 수명을 줄여라
09	무당과 승려의 반란	1 1688년의 여환 사건 2 여환의 종교경험 3 신당 교체와 도성으로의 행진 4 석가와 미륵의 교대
10	혁세의 세계관	1 고갈된 현세 2 국가 밖의 세계 3 ‘다음 세상’의 형태들 4 반란의 인지 구조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한 승 훈



강의 교안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한 승 훈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종교사란 무엇인가

- 강의에 들어가며
- 종교학과 종교사
- 역사학과 현상학

학습목표

02.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기록

- 이단심문과 민간신앙
- 과거로의 현지조사
- 인류학적 역사에서의 사건과 구조

03.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 기록, 구도, 호국, 혁세
- 종교적 지향의 적용 사례들
- 종교적 지향의 상호 관계

04.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 조선 후기 변란과 추국 자료
-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
- 강의의 구성

1주차 | 학습목표



- 종교사의 정의와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
- 심문기록을 이용한 종교사 연구 사례를 검토한다.
-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을 이해한다.
- 조선후기 변란 자료를 통한 종교사적 연구의 주제들을 도출한다.

1주차 | 종교사와 심문기록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1차시 | 종교사란 무엇인가



학습목차

- 학습목표**
- 종교학과 종교사 분야에 대해 개괄한다.
 - 종교사 분야에서의 역사학과 현상학 논쟁을 이해한다.
- 학습내용**
- 종교학과 종교사
 - 역사학과 현상학

강의에 들어가며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종교적인 주제의 광범위함

- 죽음과 사후 세계, 환생과 주술 ...
- 세계와 인간을 상상하는 문화적 양식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종교적 상상

- 초자연적인 요소를 포함
- 지역, 시대, 계층에 따른 차이와 변화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심문기록과 조선후기 종교사

※ 반역 혐의를 쓴 사람들에게 대한
고발, 조사, 처벌 기록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종교사

- 역사학의 주제
- 종교학의 연구방법

종교학과 종교사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근대 종교학

- 19세기 유럽에서 발생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종교 범주 발생의 조건

- 다른 문화와의 만남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

- 정복자 / 상인 / 여행자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유럽의 경우

- 지리상의 발견
- 종교개혁
- 제국주의의 확산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종교’라는 범주

- 다른 사람들의 종교문화에 대한 인식
- ‘우리’의 문화와의 유사성과 차이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종교문화들의 유사성

- 신화 영역: 대홍수와 살아남은 사람들
- 의례 영역: 기도, 제사, 제물, 금기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왜 종교는 비슷한가?

- 전파론: 민족이동, 교류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왜 종교는 비슷한가?

- 전파론: 민족이동, 교류
- 본질론: 발달론, 원형론



역사학과 현상학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1950~60년대 종교사 방법론 논쟁

역사학 진영

종교의 '역사'

vs

현상학 진영

'종교'의 역사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역사학 진영: 라파엘레 페타초니

- 종교는 전적으로 역사적 현상
- 신화, 의례, 기도, 주술, 지고신 등 범주 활용
- 여러 시대와 지역의 종교들 상호 비교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역사학 진영: 비토리오 란테르나리

- 사회사적 종교연구
- 현상학적 유형들을 역사적 해석에 활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현상학 진영: 미르체아 엘리아데

- 종교사는 역사 너머의 종교적 구조
- 종교학은 철학적 인간학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구조’와 ‘사건’ 사이

역사학적 종교사

현상학적 종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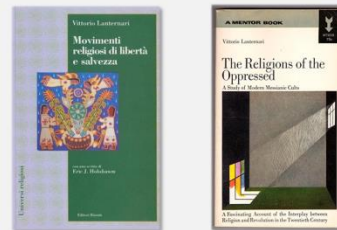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유형과 범주들

- 메시아니즘, 천년 왕국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비토리오 란테르나리, 『억압받는 자들의 종교』

[출처01, 02] Editori Riuniti, 아마존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구조’와 ‘사건’ 사이

역사학적 종교사

‘구조’로 ‘사건’을 이해

현상학적 종교사

‘사건’으로부터 ‘구조’를 해석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1차시 종교사란 무엇인가



다음 차시에서는

- 20세기 후반 역사학과 종교사의 변화
- 전근대 심문기록과 종교사

SOURCES



[출처01] Editori Riuniti

<https://editoririuniti.it/>

[출처02] 아마존

<https://www.amazon.com>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기획·조정
정다영

교안
이유정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종교사란 무엇인가

- 강의에 들어가며
- 종교학과 종교사
- 역사학과 현상학

03.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 기록, 구도, 호국, 혁세
- 종교적 지향의 적용 사례들
- 종교적 지향의 상호 관계

학습목표

02.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기록

- 이단심문과 민간신앙
- 과거로의 현지조사
- 인류학적 역사에서의 사건과 구조

04.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 조선 후기 변란과 추국 자료
-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
- 강의의 구성

학습내용

1주차 | 종교사와 심문기록



2차시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기록

2차시 |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기록



학습목차

학습목표

- 유럽 이단심문 자료를 통한 민간신앙 연구 사례를 알아본다.
- 인류학적 역사 연구 방법을 이해한다.
- 인류학적 역사에서의 사건과 구조의 관계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 이단심문과 민간신앙
- 과거로의 현지조사
- 인류학적 역사에서의 사건과 구조



이단심문과 민간신앙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1970년대 “새로운 역사학”

- 밑으로부터의 역사
- 집단전기적 역사
- 일상사
- 이야기로서의 역사
- 가능성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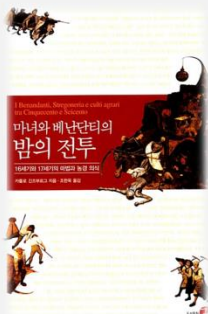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카를로 긴즈부르크

[출처01] 위키피디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마녀와 베난단티의
밤의 전투

[출처02] 알라딘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16세기의 마녀사냥

[출처03] 위키피디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베난단티

[출처04] 위키피디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치즈와 구더기

[출처05] 알라딘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이단심문기록

- 민속종교 탄압 기록
- 당시의 종교문화에 대한 증언



과거로의 현지조사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역사는 승자의 기록?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거짓말’을 하는 사료

- 권력의 불균형
- 사실관계의 왜곡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인류학적 역사의 자료들

- 공문서
- 대중소설
- 풍자시
- 심문기록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거짓말’을 하는 사료

-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과거 사람들이 무엇을 상상했는가
- 거짓말을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들에 주목

인류학적 역사에서의 사건과 구조

20세기 문화인류학

- 각각의 문화적 표현들은
상징적 의미 가짐
- 의미는 문화 전체의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

구조 속에서의 사건

- 문화의 분류체계, 상징체계, 사회적 범주
- 세계관과 우주론

역사 속에서의 구조

- 구조는 역사적
-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
- 사건을 통한 구조의 변동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유럽의 이단 심문과 조선시대 역모 심문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기획·조정
정다영

교안
이유정

영상
김록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2차시 종교자료로서의 심문기록



다음 차시에서는

“역모사건 자료에서
어떤 종교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SOURCES



[출처01]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6/Carlo_Ginzburg_par_Claude_Truong-Ngoc_mars_2013.jpg

[출처02] 알라딘

<https://www.aladin.co.kr/>

[출처03]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e/Witch_Burning.jpg

[출처04]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1/Benandanti.jpg>

[출처05] 알라딘

<https://www.aladin.co.kr/>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종교사란 무엇인가

- 강의에 들어가며
- 종교학과 종교사
- 역사학과 현상학

03.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 기복, 구도, 호국, 혁세
- 종교적 지향의 적용 사례들
- 종교적 지향의 상호 관계

학습목표

02.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기록

- 이단심문과 민간신앙
- 과거로의 현지조사
- 인류학적 역사에서의 사건과 구조

04. 조선 후기 변란의 종교사

- 조선 후기 변란과 추국 자료
-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
- 강의의 구성

학습내용

3차시 |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학습목차

학습목표

-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을 이해한다.
- 종교적 지향의 적용 사례들을 살펴본다.
- 종교적 지향의 상호 관계를 고찰한다.

학습내용

- 기복, 구도, 호국, 혁세
- 종교적 지향의 적용 사례들
- 종교적 지향의 상호 관계

1주차 | 종교사와 심문기록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기복, 구도, 호국, 혁세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 종교: 인간과 세계를 상징하는 문화적 양식
- 종교적 실천: 어떤 대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동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종교적 실천의 대상

- 개별 행위자
- 체제나 제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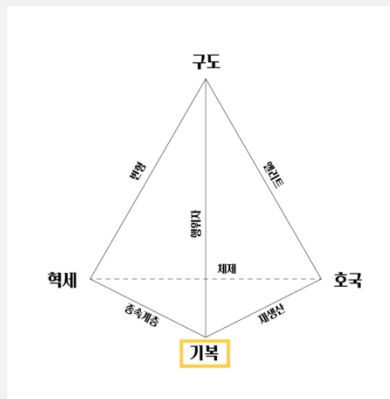
종교적 실천의 방향

- 재생산의 방향
- 변형의 방향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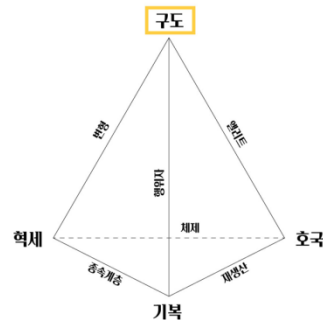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네 가지 지향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종교적 지향의 네 가지 지향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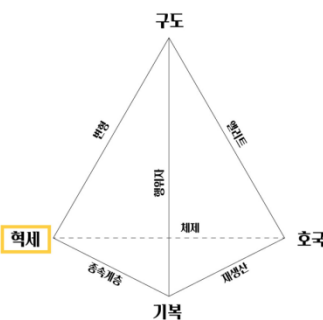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네 가지 지향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종교적 지향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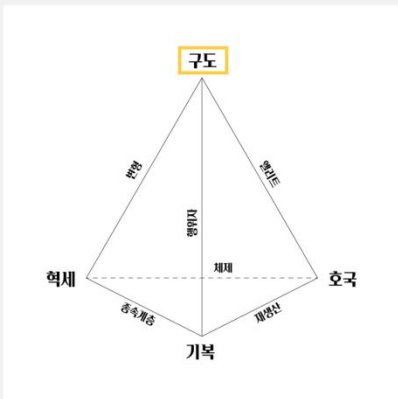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사례들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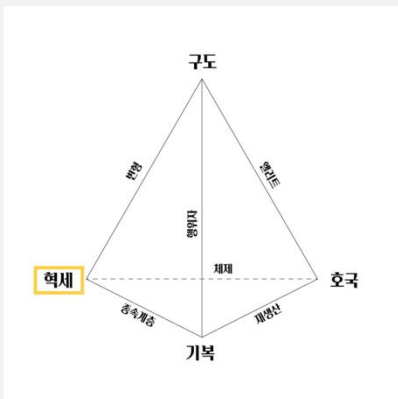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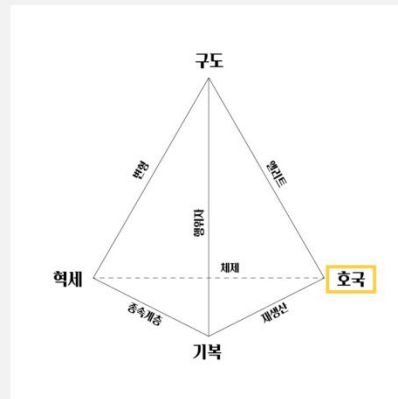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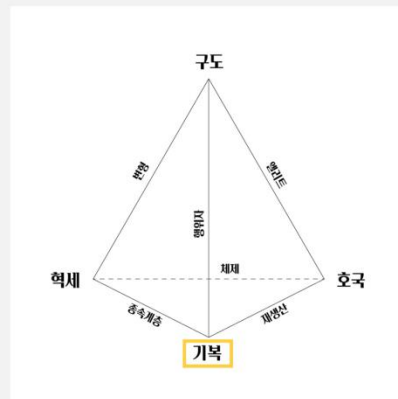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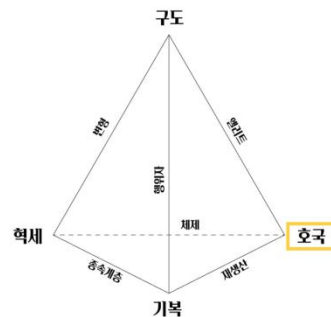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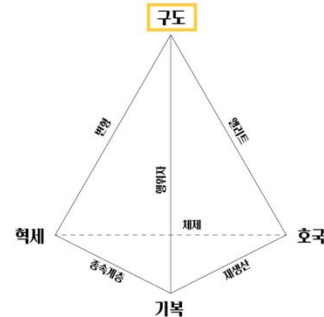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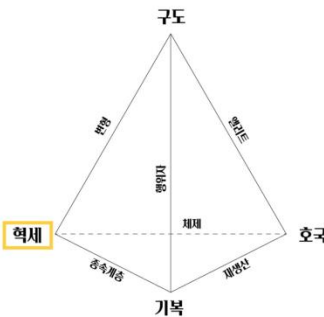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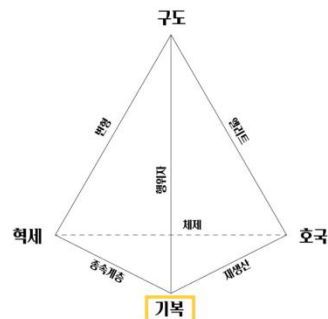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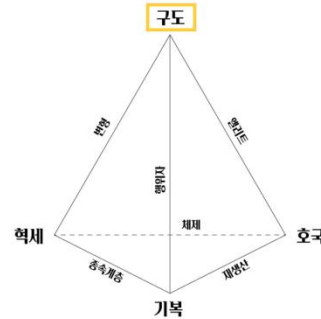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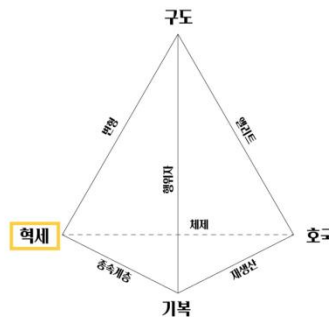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적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종교적 지향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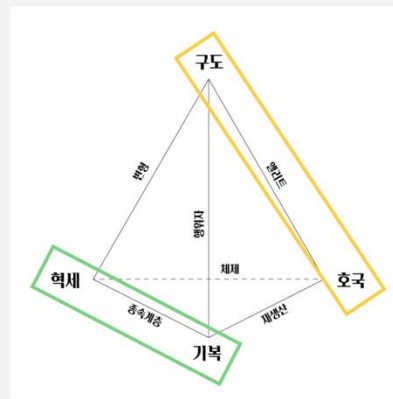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상호 관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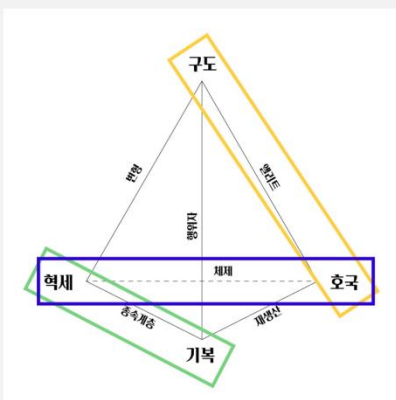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상호관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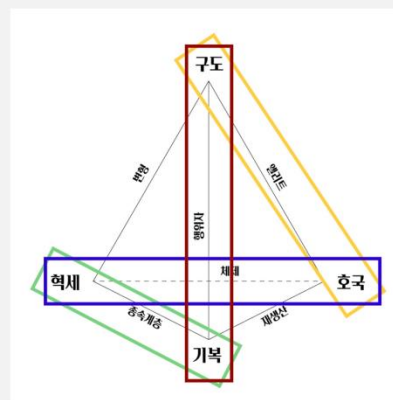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상호관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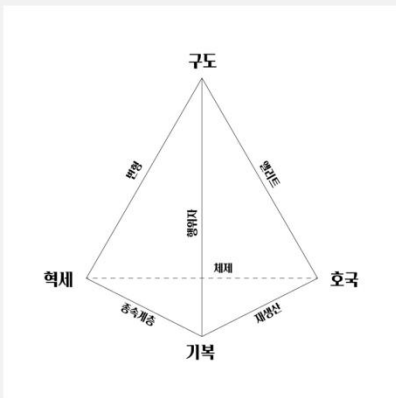
종교적 지향의 상호관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상징 자원의 전용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3차시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다음 차시에서는

- 추국 자료에 대하여
- 수업에서 다룰 주제들에 대하여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COC

기획·조정
정다영

교안
이유정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종교사란 무엇인가

- 강의에 들어가며
- 종교학과 종교사
- 역사학과 현상학

03.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

- 기록, 구도, 호국, 혁세
- 종교적 지향의 적용 사례들
- 종교적 지향의 상호 관계

학습목표

02.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기록

- 이단심문과 민간신앙
- 과거로의 현지조사
- 인류학적 역사에서의 사건과 구조

학습내용

04.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 조선 후기 변란과 추국 자료
-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
- 강의의 구성

1주차 | 종교사와 심문기록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4차시 |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학습목차

학습목표

- 조선후기 변란과 추국 자료의 특징을 이해한다.
-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를 알아본다.
- 강의의 전체 구성을 확인한다.

학습내용

- 조선후기 변란과 추국 자료
-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
- 강의의 구성

조선후기 변란과 추국 자료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민란과 변란

- 민란: 농민들의 지역적 항쟁
- 변란: 종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저항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변란에서의 종교적 상상력

- 왕조 멸망의 예언
-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기다림
- 신적인 존재의 개입에 대한 기대
-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의례적 실천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의금부 추국 기록

- 추국청: 중범죄 처리 위한 임시기관
- 고발장 접수, 체포, 조사, 심문, 판결, 처형 기록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전근대의 재판

- 자백이 결정적 증거
- 형신: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합법적 고문
- 관련자 대질심문, 증거물 확보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고발과 무고

- **고변:** 변란에 대한 고발
- **반좌:** 거짓 고발에 대한 처벌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추국기록을 다루는 법

-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부적합한 자료
- ‘반역자’들의 종교적 상상력을 밝히기 위한 종교사적 자료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

- ① **혁세 지향의 종교적 상상력**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

- ① 혁세 지향의 종교적 상상력
- ② 민간신앙의 형태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추국기록의 종교사적 의의

- ① 혁세 지향의 종교적 상상력
- ② 민간신앙의 형태
- ③ 한국종교사에 미친 영향



강의의 구성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2주차 조선후기 변란의 연대기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3주차
종교적 반역자들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5주차
진인출현설의
형태와 변형들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4주차
예언과 예언서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6주차
반역자들의
점복과 주술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7주차
반역자들의 의례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9주차
미륵의 사도와
용왕의 딸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8주차
국왕에 대한 저주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10주차
혁세의 세계관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정리

- 종교학에서의 종교
: 세계와 인간을 상상하는 문화적 양식
- 20세기 중반 종교사 논쟁
: 역사학과 현상학, 사건과 구조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정리

- 유럽의 이단심문 자료
: 종교적 상상력을 담은 민족지처럼 취급
- 추국자료 : 조선후기 심문기록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정리

- ‘새로운 역사학’으로서의 인류학적 역사
- 종교사에서의 구조와 사건의 관계

1주차 종교사와 심문기록 | 4차시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정리

- 종교적 지향의 형태들 : 기복, 구도, 호국, 혁세
- 추국자료에 나타난 종교적 지향들

REFERENCES



가을로 긴즈부르그, 조한욱 옮김, 『마녀와 베난단티의 밤의 전투: 16세기와 17세기의 마법과 농경의식』
(길, 2004)

피터 버크, 조한욱 옮김,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2005)

한승훈,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 기록: 추국 문서와 조선후기 종교사」 『종교문화비평』 37 (2020)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기획·조정
정다영

교안
이유정

영상
김록현

기타 학습요소

읽기자료

한승훈,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기록: 추국 문서와 조선후기 종교사」 『종교문화비평』 37 (2020)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764776>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p.1-16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ffefc6d765011deffe0bdc3ef48d419&keyword=%ED%95%9C%EC%8A%B9%ED%9B%88%20%EC%A1%B0%EC%84%A0

백승종,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푸른역사, 2006) 프롤로그
[https://www.yplibooks.co.kr/book.yplibooks.co.kr/bookcd=1549500168](https://www.yplibooks.co.kr/book.yplibooks.co.kr/book.yplibooks.co.kr/bookcd=1549500168)

퀴즈

다음은 전근대 반란 심문기록을 역사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다. 각 연구 태도의 특징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어느 접근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되는지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0줄 이내]

(A) 역사의 무대에서 '실패한 패배자', '비운의 야심가', '꿈을 이루지 못한 혁명가'로 자리매김하는 변란의 주모자들은 좌절하고 이루지 못하고 잊혀졌던 만큼의 '그들만의 역사'를 지금껏 전하고 있다.

그 조그마한 조각들을 모으고 붙여 일련의 체계적인 사상으로 정리하려는 작업은 공식적인 역사의 무대에서는 늘 잊혀지고 지워지고 천시받았던 민중의 사상에 대한 연구이다.

- 김탁, 『조선의 예언사상』 上 (북코리아, 2016), 5.

퀴즈

다음은 전근대 반란 심문기록을 역사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다. 각 연구 태도의 특징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어느 접근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되는지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0줄 이내]

(B)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상대로 범죄수사 기법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가는 일견 수사관과 같다. 수사관이든 역사가이든 그들은 파편으로 존재하는 모든 단서를 현미경을 들이대며 검토해야 하고 사건에 도사린 음험한 분위기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역사가의 탐구 활동은 현실의 수사관과는 여러모로 다르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수사관은 범인을 가려내 그의 범죄 행위에 합당한 처벌하는 데 주력하지만 역사가는 과거의 진실에만 매달린다는 점이다.

-백승종,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푸른역사, 2006), 8-9.

퀴즈

다음은 전근대 반란 심문기록을 역사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다. 각 연구 태도의 특징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어느 접근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되는지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0줄 이내]

(C) (...) 세속 및 교회 법원의 재판 기록들은 수백 년 전에 수행된 현지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인류학자들의 수첩에 비교될 수 있다. 심문관과 인류학자 사이만이 아니라 피고인과 ‘원주민’ 사이에 이 유비를 적용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 Carlo Ginzburg, *Clues, Myths, and the Historical Metho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141.

[모범 답안 예시]

A연구는 당대 민중의 사상에 관한 연구로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학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 바로 미시사 연구 방법이다. 미시사 연구 방법은 정리된 사서가 아니라 당대의 일상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의 생각, 신앙, 의례 등에 대해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당대의 사회적 문제의식과 사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체계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역사학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범죄수사에 임하는 수사관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B연구에서는 범인을 밝혀내어 처벌에 주력하는 수사관과 달리 역사학자는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의 진실은 ‘구조 속에서의 사건’, 즉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사람들의 의식, 상징 구조 등에 대한 총체적 재구성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C연구 역시 미시사 연구방법의 일종으로 인류학적 역사의 자료로서 이단 심문 기록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심문 기록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심문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일어나는 행위들을 살펴봄으로써 과거인들의 세계관, 종교, 사상등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목적이다.

강의 전문(국문)

1

00:00:52,052 --> 00:00:54,487

여러분 안녕하세요.

2

00:00:54,487 --> 00:01:01,127

이번 강의에서는 어느 특별한 주제에 대해 어느 특별한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3

00:01:01,127 --> 00:01:04,564

특별한 주제란 바로 조선 후기 종교사입니다.

4

00:01:04,564 --> 00:01:13,306

종교사라고 하면 보통은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것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5

00:01:13,306 --> 00:01:16,910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6

00:01:16,910 --> 00:01:22,148

특정한 시대에 그런 여러 종교 전통들에서 어떤 사상이 발생하고

7

00:01:22,148 --> 00:01:29,189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이 등장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8

00:01:29,189 --> 00:01:36,529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인식하는 주제들은 그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9

00:01:36,529 --> 00:01:41,801

이를테면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00:01:41,801 --> 00:01:48,541

어떤 시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11

00:01:48,541 --> 00:01:54,981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시체와 분리된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12

00:01:54,981 --> 00:02:03,256

다른 세계로 들어가거나 이 세상을 떠돌면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13

00:02:03,256 --> 00:02:12,999

이런 죽은 자들은 무시무시한 유령의 모습으로 산 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조상으로 불리면서 후손들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14

00:02:12,999 --> 00:02:22,742

경우에 따라서 죽은 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이나 죽은 뒤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15

00:02:22,742 --> 00:02:31,217

또는 하나의 생명이 죽으면 다른 개체로 다시 태어나 계속해서 삶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6

00:02:31,217 --> 00:02:43,596

이런 믿음에 따르면 한때 사람이었던 이들이 동물이나 벌레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신이나 악마, 별과 같은 존재들도 한 때에는 사람이었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17

00:02:43,596 --> 00:02:53,973

죽음이라는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이 죽은 후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상상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

00:02:53,973 --> 00:03:01,481

어떤 사람들에게 세계는 신령들과 악령들이 살아있는 사람 곁에서 배회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19

00:03:01,481 --> 00:03:12,258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악령들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달래거나 몰아낼 수 있는 의례적, 주술적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20

00:03:12,258 --> 00:03:20,900

또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보살피는 은혜로운 신의 존재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21

00:03:20,900 --> 00:03:29,142

그런 문화에서는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학문이나 신과 신자들의 중재를 맡는 성직자 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22

00:03:29,142 --> 00:03:38,618

모든 생명이 형태를 바뀌가면서 윤회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생물들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죽이기를 꺼릴 것입니다.

23

00:03:38,618 --> 00:03:49,929

왜냐하면 자신들도 한때는 작은 벌레였을 수 있고 또 언젠가 자기도 소나 돼지가 되어서 사람에게 잡아먹힐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4

00:03:49,929 --> 00:03:58,805

그렇게 생각해보면 넓은 의미에서의 종교란 세계와 인간을 상상하는 문화적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

00:03:58,805 --> 00:04:06,479

그리고 종교적 상상에는 감각이나 일상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6

00:04:06,479 --> 00:04:09,349

이런 상상에는 물론 비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27

00:04:09,349 --> 00:04:24,664

그러나 인간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상상은 분명 가상의 것이지만 그저 공상이 아닌 작동하는 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

00:04:24,664 --> 00:04:36,976

중요한 점은 이런 상상의 양식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이나 시대, 계층 등에 따라서 차이와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29

00:04:36,976 --> 00:04:45,885

그래서 종교는 역사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주제를 고민하는 분야를 우리는 종교사라고 부릅니다.

30

00:04:45,885 --> 00:04:52,025

종교사의 자료는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이 표현되어 있는 모든 것입니다.

31

00:04:52,025 --> 00:05:01,000

여러 시대와 장소의 문헌 자료, 현지 조사 기록, 구전 전승, 유적 유물과 같은 물질 문화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32

00:05:01,000 --> 00:05:11,244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조선후기 종교사를 생각하기 위한 자료로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조선왕조에서 작성된 심문 기록을 다루려고 합니다.

33

00:05:11,244 --> 00:05:24,424

이 특별한 자료는 당시 사회에서 위법적인 일을 하였다고 지목되어 처벌받은 사람들, 대개는 국가에 대한 반역 혐의를 쓴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사, 처벌 기록입니다.

34

00:05:24,424 --> 00:05:41,607

그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군사 행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보통은 단지 반란 모의를 했거나 불온한 발언을 했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35

00:05:41,607 --> 00:05:49,449

그렇다면 이 반역자들에 대한 기록이 앞서 말씀드린 종교사와는 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36

00:05:49,449 --> 00:05:52,785

이것이 우리가 첫 주차 수업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37

00:05:52,785 --> 00:06:00,393

먼저 종교사는 무엇인가, 종교사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워볼 것입니다.

38

00:06:00,393 --> 00:06:05,965

다음으로는 심문 기록을 이용해 이루어진 종교사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9

00:06:05,965 --> 00:06:15,575

그리고 앞으로 이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이론적인 틀인 종교적 실천의 네 가지 지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

00:06:15,575 --> 00:06:32,058

마지막으로는 조선시대 변란에서 종교사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될 수업에서 다룰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

00:06:35,061 --> 00:06:44,303

첫 번째 영상에서는 종교사란 어떤 분야이며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2

00:06:44,303 --> 00:06:59,419

먼저 유럽에서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의 종교 연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나타난 문제의식이 이후에 종교사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

00:06:59,419 --> 00:07:15,701

다음으로는 195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종교사 분야에서 일어난 방법론 논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종교사의 접근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44

00:07:15,701 --> 00:07:24,977

종교사는 역사학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의 분과 학문인 종교학의 연구 방법이기도 합니다.

45

00:07:24,977 --> 00:07:29,415

근대 종교학이 발생한 것은 19세기 유럽에서였습니다.

46

00:07:29,415 --> 00:07:32,819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늦은 시기입니다.

47

00:07:32,819 --> 00:07:39,592

세계의 주요 종교 전통들은 저마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48

00:07:39,592 --> 00:07:48,868

제도화되지 않은 종교적 현상까지 포함시킨다면 선사시대의 인간도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49

00:07:48,868 --> 00:07:57,276

그러나 종교라는 범주 그리고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은 어떤 특수한 조건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50

00:07:57,276 --> 00:08:03,115

그 특수한 조건이란 바로 나의 것과는 다른 문화와의 만남입니다.

51

00:08:03,115 --> 00:08:19,465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닫혀 있다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 이외의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라는 유적 개념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52

00:08:19,465 --> 00:08:28,007

그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가지고 늘 해오던 대로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면 되니까요.

53

00:08:28,007 --> 00:08:36,582

그러나 머나먼 나라에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4

00:08:36,582 --> 00:08:49,962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어떤 신들을 믿는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상상하는지, 어떤 의례 행위를 하는지와 같은, 종교 문화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55

00:08:49,962 --> 00:08:57,403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른 종교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56

00:08:57,403 --> 00:09:06,479

주로 큰 제국을 세운 정복자들이거나 원거리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거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여행자들이었습니다.

57

00:09:06,479 --> 00:09:15,321

유럽의 경우에는 지리상의 발견과 종교 개혁 그리고 제국주의의 확산이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만나는 계기였습니다.

58

00:09:15,321 --> 00:09:28,301

흔히 대항의시대라 불리는 중세 말, 초기 근대 시기의 유럽인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직접 항해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갔습니다.

59

00:09:28,301 --> 00:09:40,813

그 이전까지 유럽인들에게 신앙이란 오직 그리스도교였고 그밖의 접할 수 있었던 종교적 타자란 유럽 내의 소수자인 유대인들,

60

00:09:40,813 --> 00:09:49,488

유럽 밖의 무슬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전에 민속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농민들 정도였습니다.

61

00:09:49,488 --> 00:10:04,670

그러나 그리스도교 이외의 것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자기들의 문화와 같은 급으로 묶어서 비교하는 종교라는 범주는 잘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62

00:10:04,670 --> 00:10:10,876

또 근대 이전까지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종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더라도

63

00:10:10,876 --> 00:10:20,219

이들을 우상숭배, 악마숭배 같은 식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이것이 종교라는 큰 범주의 일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64

00:10:20,219 --> 00:10:32,565

그런데 먼 나라의 사람들과 장사를 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때로는 전쟁도 하고 하는 사이에 이들에 대한 지식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65

00:10:32,565 --> 00:10:42,875

다른 장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다른 것을 믿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나간 것은 이때입니다.

66

00:10:42,875 --> 00:10:54,787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그리스도교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은 하나의 문명 안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각성을 이끌어냈습니다.

67

00:10:54,787 --> 00:11:06,332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오랜 갈등과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신앙의 자유라거나 종교 분리와 같은 원칙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68

00:11:06,332 --> 00:11:13,406

지리상의 발견으로 다른 문명의 종교들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종교개혁 시기 이후

69

00:11:13,406 --> 00:11:25,384

서로 다른 믿음들에 대한 비교론적 시각이나 상대주의적인 인식이 늘어났다, 이것이 근대 종교학이 발생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70

00:11:25,384 --> 00:11:30,156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제국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71

00:11:30,156 --> 00:11:35,961

이제 유럽 밖의 세계는 그냥 교류가 아니라 지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72

00:11:35,961 --> 00:11:42,735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는 현지 사람들의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

73

00:11:42,735 --> 00:11:51,444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지식이, 더 나아가서는 종교 현상 일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74

00:11:51,444 --> 00:11:57,717

왜 종교 현상 일반이라는 게 문제가 되었냐면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이전까지

75

00:11:57,717 --> 00:12:07,793

이교도, 우상숭배자, 악마숭배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믿음에서 유럽인들 자신들의 것과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76

00:12:07,793 --> 00:12:15,267

이를테면 전 세계의 종교에서는 그리스도교 바이블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신화들이 나타납니다.

77

00:12:15,267 --> 00:12:24,043

세계가 멸망할 정도의 대홍수와 신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78

00:12:24,043 --> 00:12:32,618

또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영웅들에 대한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79

00:12:32,618 --> 00:12:39,358

종교 문화들 사이의 유사성은 신화만이 아니라 의례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80

00:12:39,358 --> 00:12:47,199

신들과 소통하기 위한 기도나 제사를 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81

00:12:47,199 --> 00:12:55,908

제물을 준비하고 의례가 진행되는 중에는 이런저런 금기를 지키는 것도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82

00:12:55,908 --> 00:13:03,783

이렇게 비슷한 현상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83

00:13:03,783 --> 00:13:09,855

하나는 인간의 문화가 한 지역에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전파론입니다.

84

00:13:09,855 --> 00:13:19,665

머나먼 옛날 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화나 의례가 민족 이동이나 교류에 따라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다는 관점이죠.

85

00:13:19,665 --> 00:13:30,509

초창기 종교학에서는 이런 전파의 경로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한 역사 비교 언어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86

00:13:30,509 --> 00:13:44,723

마치 언어의 분포를 살피고 어족을 분류하는 것처럼 종교를 분류하고 변화 양상을 살핌으로써 과학적인 종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87

00:13:44,723 --> 00:13:50,496

다른 하나의 가설은 인간의 근본적인 종교성을 탐구하려는 본질론입니다.

88

00:13:50,496 --> 00:14:01,473

이런 관점에 의하면 종교가 세계 어디에서나 비슷한 것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디에서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89

00:14:01,473 --> 00:14:12,351

그래서 19세기의 종교학자들은 당시 유행했던 사회진화론에 따라서 종교가 발달해 나가는 보편적인 패턴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90

00:14:12,351 --> 00:14:25,297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토테미즘같이 근대인들이 보기에 원시적으로 보이는 신앙 형태는 인간 종교 발달의 특정한 단계라고 생각했던 거죠.

91

00:14:25,297 --> 00:14:35,107

20세기 이후에는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게 된 심리적인 구조나 원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92

00:14:35,107 --> 00:14:50,990

다시 말해서 세계 여러 문화에서 나타나는 종교를 폭넓게 비교하고 그들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면 종교의 본질, 나아가 종교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본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3

00:14:50,990 --> 00:15:05,471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종교학에 영향을 주었던 연구 방법에는 역사학 이외에도 언어학, 문헌학, 인류학, 민족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고고학 등 수많은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94

00:15:05,471 --> 00:15:19,351

그러나 전파론적인 관점이든 본질론적인 관점이든 근대 이후의 종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에 대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즉 역사적 자료입니다.

95

00:15:19,351 --> 00:15:28,627

그래서 종교사라는 말은 흔히 종교학 그 자체와 동의어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96

00:15:31,630 --> 00:15:42,775

그런데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종교학 또는 종교사 분야에는 대단히 치열한 방법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97

00:15:42,775 --> 00:15:56,188

이 논쟁에서 한편은 종교사 연구에서 역사학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98

00:15:56,188 --> 00:16:09,234

역사학 진영에서는 종교사도 일반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에 영향을 주는 역학 관계라 구체적인 사건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99

00:16:09,234 --> 00:16:23,415

사건이나 맥락을 무시하고 엄밀한 사료 비판을 건너뛴 채 종교의 본질 같은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비역사적인 방법은 필연적으로 오류에 빠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100

00:16:23,415 --> 00:16:35,828

반면 현상학 진영에서는 그런 문제보다는 종교의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구조에 다가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1

00:16:35,828 --> 00:16:45,237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사 즉 종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102

00:16:45,237 --> 00:16:56,915

오히려 역사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과 종교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103

00:16:56,915 --> 00:17:06,392

역사학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런 종교 연구란 신학이나 철학에서 할 일이지 종교사에서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104

00:17:06,392 --> 00:17:15,134

그러나 현상학 진영에서는 종교 현상에는 종교를 다루기 위한 독자적인 방법을 보완해야지

105

00:17:15,134 --> 00:17:25,944

기존의 역사학으로 종교사에 접근하면 종교는 사라지고 역사, 경제, 정치 같은 것들만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06

00:17:25,944 --> 00:17:36,555

물론 실제로는 종교사 연구자들이 이런 양극단 중에서 하나만을 고르기보다는 어떻게든 두 가지 방법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107

00:17:36,555 --> 00:17:47,099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라파엘레 페타초니와 그 제자인 비토리오 란데르나르는 역사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선사학적 관점을 접목시키려 한 학자들입니다.

108

00:17:47,099 --> 00:17:53,672

페타초니는 종교란 전적으로 역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109

00:17:53,672 --> 00:18:00,245

그러나 그는 종교사가 특정한 시대에 대한 역사적 연구만을 뜻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110

00:18:00,245 --> 00:18:03,482

페타초니는 신화, 의례, 기도.

111

00:18:03,482 --> 00:18:11,623

주술, 지고신 같은 범주들을 활용해서 여러 종교들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112

00:18:11,623 --> 00:18:20,666

라텐르나르 역시 종교 연구에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보다는 사회사적 접근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13

00:18:20,666 --> 00:18:28,874

현상학을 통해 만들어진 유형들을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14

00:18:28,874 --> 00:18:37,549

한편 루마니아 출신의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현상학적 종교사 연구의 대표격인 학자입니다.

115

00:18:37,549 --> 00:18:51,964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종교학자이기도 한 엘리아데는 종교학은 역사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16

00:18:51,964 --> 00:19:06,979

그러나 엘리아데는 종교학의 핵심 주제란 어디까지나 역사적 현상들 넘어에 있는 종교의 본질적인 구조이고 결국 종교학은 철학적인 인간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17

00:19:06,979 --> 00:19:16,655

다시 말해서 종교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 경험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실존을 해석하고

118

00:19:16,655 --> 00:19:26,865

그를 바탕으로 사회 제도나 기술, 도덕, 이념, 예술 같은 문화적 창조물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9

00:19:26,865 --> 00:19:42,047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종교 현상을 비교하면서 밝혀지는 구조와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 사이의 관계입니다.

120

00:19:42,047 --> 00:19:53,025

그런데 역사학적 종교사에서는 구조를 통해 유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121

00:19:53,025 --> 00:20:03,802

반면에 현상학적 종교사에서는 여러 사건들에서 통일된 구조를 발견하려고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22

00:20:03,802 --> 00:20:18,684

다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느 주제에 대해서 두 진영이 어떻게 다른 접근을 했는지를 예로 들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00:20:18,684 --> 00:20:27,259

앞에서 이야기한 비토리오 란데르나리의 대표작은 《억압받는 자들의 종교》라는 책입니다.

124

00:20:27,259 --> 00:20:36,235

이 저작은 근현대 시기 식민지 지역과 제3세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종교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5

00:20:36,235 --> 00:20:50,849

여기에서는 식민지 상황에서 각 지역의 토착적인 종교 문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발생한 여러 형태들의 저항적인 종교 운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26

00:20:50,849 --> 00:21:00,892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선교나 식민 당국의 억압과 같은 외적 충격들이 종교 변동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것이죠.

127

00:21:00,892 --> 00:21:11,837

그런데 이런 종교 운동들을 이야기하면서 란데르나리는 메시아니즘이라거나 천년 왕국 같은 범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8

00:21:11,837 --> 00:21:19,044

메시아니즘에서 메시아란 기름 부어진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129

00:21:19,044 --> 00:21:32,291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는 왕이나 사제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번들번들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신이 그 사람을 특별하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구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130

00:21:32,291 --> 00:21:43,602

나중에는 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신이 인류를 보내서 보낸 구원자, 해방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서 그리스도교 교리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131

00:21:43,602 --> 00:21:52,778

종교사에서는 이 메시아니즘이라는 말을 유대-그리스도교 전통 밖으로까지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132

00:21:52,778 --> 00:22:07,693

어느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메시아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메시아니즘을 교리로 하는 종교라고 분류하는 식입니다.

133

00:22:07,693 --> 00:22:11,797

천년 왕국이라는 범주도 비슷합니다.

134

00:22:11,797 --> 00:22:27,112

이 말은 원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찾아올 새로운 세계질서를 가리키는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나왔지만 종교사 일반에서도 그와 유사한 상상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135

00:22:27,112 --> 00:22:39,057

란데르나리는 바로 이런 현상학적 유형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꾸는 식민지 지역 종교운동들의 역사를 서술하려고 한 것입니다.

136

00:22:39,057 --> 00:22:44,396

한편 같은 자료를 두고도 엘리아데는 전혀 다른 접근을 택합니다.

137

00:22:44,396 --> 00:22:52,537

그에게 있어서는 식민지의 현실이나 외부의 충격 같은 역사적 사실은 구체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138

00:22:52,537 --> 00:23:05,617

중요한 것은 그런 종교 운동들에서 현재 세계의 종말이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메시아적인 인물에 대한 기다림과 같은 보편적인 종교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39

00:23:05,617 --> 00:23:17,662

이것은 종교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원형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식민지 상황에 억압적인 현실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140

00:23:17,662 --> 00:23:32,177

심지어는 천년 왕국적인 종교운동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정치적 독립이나 자유와 같은 것도 인간이 언제나 그리워하는 태초의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욕망이라고 해석됩니다.

141

00:23:32,177 --> 00:23:44,523

한쪽은 구조로 사건을 이해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사건으로부터 구조를 해석해내려고 한다는 차이를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2

00:23:44,523 --> 00:23:56,635

지금까지 우리는 심문 기록을 통해서 조선후기 종교사를 살펴보려는 이 강의 전체의 주제를 확인하고 가장 먼저 종교사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43

00:23:56,635 --> 00:24:07,846

종교학 분야에서 종교사는 여러 시대와 지역의 종교 현상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습니다.

144

00:24:07,846 --> 00:24:14,352

초창기 비교 종교학에서는 종교들의 유사성을 전파론과 본질론을 통해서 설명하였는데

145

00:24:14,352 --> 00:24:27,232

전파론은 종교들이 어떻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는지에 본질론은 그런 종교들을 만들어낸 인간의 심리적, 문화적 구조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46

00:24:27,232 --> 00:24:39,945

어느 쪽이건 종교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 연구는 필연적으로 종교사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147

00:24:39,945 --> 00:24:51,756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종교 학계에서 이루어진 역사학과 현상학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사에서 사건과 구조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는지도 다루었습니다.

148

00:24:51,756 --> 00:24:58,864

다음 영상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역사학에서 일어난 변화가 종교사 방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149

00:24:58,864 --> 00:25:09,307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전근대의 심문 기록이 어떻게 종교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30,630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20세기 중반까지 종교사의 문제의식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방법론들이 고민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

00:00:30,630 --> 00:00:41,241

특히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종교사 분야에서 있었던 역사학과 현상학 공법 사이의 논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3

00:00:41,241 --> 00:00:47,180

이번 시간에는 그 논쟁 이후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다뤄볼 텐데요.

4

00:00:47,180 --> 00:00:57,724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현상학보다는 역사학 쪽이었습니다.

5

00:00:57,724 --> 00:01:05,632

1970년대에 들어서 서구에서는 정치사나 사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역사학 방법과는 다른

6

00:01:05,632 --> 00:01:10,637

새로운 역사학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활발하게 제안되었습니다.

7

00:01:10,637 --> 00:01:16,576

8

00:01:16,576 --> 00:01:28,321

어떤 경우에는 위인들과 영웅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밑으로부터의 역사, 집단정기적 역사, 일상사라고 하기도 하고

9

00:01:28,321 --> 00:01:36,329

경제학적인 수치나 거대 담론에서 거리를 둔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로서의 역사라고 하는가 하면

10

00:01:36,329 --> 00:01:47,006

엄밀한 실증보다는 사료의 행간에 주목해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가능성의 역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11

00:01:47,006 --> 00:01:58,685

이때 이후로 등장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역사학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인기를 끌고 또 종교사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미시사 연구 방법입니다.

12

00:01:58,685 --> 00:02:07,827

그 대표적인 역사학자로 거론되는 까를로 긴즈부르크는 193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났습니다.

13

00:02:07,827 --> 00:02:15,335

어머니는 소설가 나탈리아 긴즈부르크였고 아버지는 문헌학자인 레오네 긴즈부르크였습니다.

14

00:02:15,335 --> 00:02:28,548

긴즈부르그는 1961년 피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1966년에 《마녀와 베난단띠의 밤의 전투》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15

00:02:28,548 --> 00:02:38,658

이 책은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이탈리아 동북부에 있는 프리울리 지역의 이단 심문 기록에 대한 연구입니다.

16

00:02:38,658 --> 00:02:47,734

당시 이단 심문소에서는 이단이나 마법사,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이 성직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17

00:02:47,734 --> 00:02:57,043

그 결과로 반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참회를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했죠.

18

00:02:57,043 --> 00:03:04,918

우리에게는 마녀 사냥으로 잘 알려진 탄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여기에서였습니다.

19

00:03:04,918 --> 00:03:19,632

종래의 마녀 사냥은 흔히 지배 종교 쪽에서 만들어진 틀에 따라 조작되고 주로 늙고 가난한 여성들이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20

00:03:19,632 --> 00:03:28,741

그런데 긴즈부르그는 실제 재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1

00:03:28,741 --> 00:03:38,785

이단 심문 과정에서는 당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 신앙이나 농경의례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보았던 것이죠.

22

00:03:38,785 --> 00:03:50,463

흔히 중세 유럽을 그리스도교 세계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해하고 신앙을 제도적으로 실천했던 계층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23

00:03:50,463 --> 00:04:03,209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유럽에 전해지기 이전의 민간 신앙에 따라서 점을 치거나 주술로 병을 치료하거나 행운을 빌거나 했죠.

24

00:04:03,209 --> 00:04:17,757

이전에 믿던 신이나 정령들이 그리스도교의 성인으로 대체되는 정도의 변화를 제외하면 일반 민중의 종교적 심성은 고대의 형태를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

00:04:17,757 --> 00:04:27,500

그런데 이단 심문을 주도한 종교적 엘리트들은 이런 신앙을 악마숭배나 사악한 마법으로 몰아서 처벌하곤 했습니다.

26

00:04:27,500 --> 00:04:32,772

긴즈부르그가 연구한 재판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27

00:04:32,772 --> 00:04:37,710

이단 심문소에 여러 명의 농민들이 마녀 혐의로 끌려왔습니다.

28

00:04:37,710 --> 00:04:52,925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마녀가 아니고 오히려 악마를 모시는 마녀들에 맞서 신의 편에서 농작물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9

00:04:52,925 --> 00:04:58,531

프리울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베난단띠라고 불렀습니다.

30

00:04:58,531 --> 00:05:07,206

이 전투에서 마녀들이 이기면 그 해에는 흉년이 찾아오고 베난단띠들이 이기면 풍년이 찾아온다는 거죠.

31

00:05:07,206 --> 00:05:10,143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32

00:05:10,143 --> 00:05:20,219

동유럽의 여러 지역에도 신의 편에 서서 풍작을 위해 싸운다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고대적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3

00:05:20,219 --> 00:05:32,098

지역에 따라서 이 싸움은 잠을 자는 사이 영혼만 빠져나가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직접 나뭇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연극이나 놀이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34

00:05:32,098 --> 00:05:41,207

긴즈부르그는 이런 사람들이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고대의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5

00:05:41,207 --> 00:05:51,050

동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베난단띠였고 헝가리에서는 딸또시였고 지금의 리투아니아 지역에서는 늑대인간이었습니다.

36

00:05:51,050 --> 00:06:04,731

늑대인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 변신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농작물을 훔쳐가는 사악한 존재들을 공격하는 신의 사냥개였던 것입니다.

37

00:06:04,731 --> 00:06:13,773

긴즈부르그의 더욱 유명한 저작인 《치즈와 구더기》도 이단 혐의로 고발된 방앗간 주인의 심문 기록을 통해서

38

00:06:13,773 --> 00:06:24,317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그리스도교 교리 이외의 종교적 상상력이 어떤 식으로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39

00:06:24,317 --> 00:06:32,759

그러나 이런 민간 신앙이 남아 있는 것은 당시의 엘리트들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40

00:06:32,759 --> 00:06:43,970

그래서 설령 농민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식인들의 기록에서는 언급되지 않거나 왜곡된 형태로 묘사되는 일이 흔했죠.

41

00:06:43,970 --> 00:06:47,407

그러나 심문 기록에서는 다릅니다.

42

00:06:47,407 --> 00:06:58,651

이단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43

00:06:58,651 --> 00:07:14,133

그래서 이단 심문 기록은 민속 종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기록에는 남지 않은 당시의 종교 문화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44

00:07:14,133 --> 00:07:21,073

만약에 이런 증언들을 무지한 농민들의 단순한 망상이나 환상으로 취급한다면

45

00:07:21,073 --> 00:07:32,752

혹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은 기록으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문화에 대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46

00:07:35,755 --> 00:07:41,727

긴즈부르그가 다룬 이단 심문 기록이 가지는 또 다른 가치도 있습니다.

47

00:07:41,727 --> 00:07:45,498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48

00:07:45,498 --> 00:07:54,774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역사 기록이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49

00:07:54,774 --> 00:08:01,914

그런데 실제로는 스스로의 기록 자체를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50

00:08:01,914 --> 00:08:11,924

그리고 과거 사람들은 현대인들과는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51

00:08:11,924 --> 00:08:19,565

그렇다면 종교와 같은 옛날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2

00:08:19,565 --> 00:08:27,440

인류학자라면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민족지 같은 자료를 활용하거나

53

00:08:27,440 --> 00:08:34,881

아니면 아예 스스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54

00:08:34,881 --> 00:08:45,324

그런데 타임머신 같은 것이 없는 한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과거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5

00:08:45,324 --> 00:08:54,634

문화사학자인 로버트 단터는 역사학자도 현지 조사나 인터뷰와 같은 인류학적인 연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6

00:08:54,634 --> 00:09:09,815

과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공문서나 민간에서 떠돌던 대중소설이나 풍자시 같은 것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료들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7

00:09:09,815 --> 00:09:23,229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들의 문화를 담고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 그런 문헌들을 창의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58

00:09:23,229 --> 00:09:29,802

그런 점에서 보면 이단 심문 기록은 대단히 매력적인 자료인 셈입니다.

59

00:09:29,802 --> 00:09:35,908

이 기록은 심문관과 피고인 사이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0

00:09:35,908 --> 00:09:39,045

다시 말해 인터뷰와 같은 형태입니다.

61

00:09:39,045 --> 00:09:44,850

물론 이 인터뷰는 극단적인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62

00:09:44,850 --> 00:09:52,191

묻는 사람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답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63

00:09:52,191 --> 00:09:56,629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64

00:09:56,629 --> 00:10:00,466

그런 반론에 대해 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65

00:10:00,466 --> 00:10:06,105

인류학자의 현지 조사 보고서나 민족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66

00:10:06,105 --> 00:10:13,846

많은 경우 인류학자와 현지인들 사이의 대화 역시 권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67

00:10:13,846 --> 00:10:25,157

인류학적 연구에서도 정보 제공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68

00:10:25,157 --> 00:10:35,56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은 그런 위험을 의식하는 가운데 타자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69

00:10:35,568 --> 00:10:44,010

혹은 연구자와 현지인 사이에 일어나는 오해 자체가 성찰적인 연구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70

00:10:44,010 --> 00:10:51,984

그래서 단터는 문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사 연구를 인류학적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71

00:10:51,984 --> 00:10:58,124

종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학적 역사는 대단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72

00:10:58,124 --> 00:11:06,565

심문 기록에는 과거 사람들의 종교적 사고방식이나 상상력이 비교적 낱것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73

00:11:06,565 --> 00:11:20,046

그렇지만 이단 심문이나 사법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심문에서 피고인들은 최대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도는 대단히 낮습니다.

74

00:11:20,046 --> 00:11:28,354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심문 기록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75

00:11:28,354 --> 00:11:41,167

하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 무엇을 상상했는가라고 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6

00:11:41,167 --> 00:11:54,647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거짓말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구성하는 요소들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문화적인 사실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7

00:11:54,647 --> 00:12:08,527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적 역사는 문화의 역사, 특히 종교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 대단히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8

00:12:08,527 --> 00:12:17,737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종교사의 방법론 논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건과 구조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9

00:12:17,737 --> 00:12:27,379

현상학적인 종교 연구는 개별 사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종교적 구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80

00:12:27,379 --> 00:12:34,320

역사학적인 종교 연구는 구조를 단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씀도 드렸죠.

81

00:12:34,320 --> 00:12:42,261

그런데 인류학적인 역사에서는 사건과 구조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82

00:12:45,264 --> 00:12:58,611

20세기의 문화인류학에서는 각각의 문화적 표현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는 문화 전체의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3

00:12:58,611 --> 00:13:12,424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사건이라는 것도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류 체계, 상징 체계, 사회적 범주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84

00:13:12,424 --> 00:13:25,504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그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세계관이나 우주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85

00:13:25,504 --> 00:13:31,811

그것은 우리가 종교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종교적 상상력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86

00:13:31,811 --> 00:13:44,089

다만 우리는 그런 종교적 상상력의 구조가 현상학적인 종교사 연구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7

00:13:44,089 --> 00:13:53,032

구조라는 것도 역사적인 것이고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8

00:13:53,032 --> 00:13:58,470

그리고 그런 변화는 다른 아닌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89

00:13:58,470 --> 00:14:03,609

이런데면 전쟁이나 왕조 교체와 같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라거나

90

00:14:03,609 --> 00:14:18,224

공황이나 기술 발전과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 혹은 전염병의 유행이나 기근과 같은 대규모의 재난 같은 사건들이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91

00:14:18,224 --> 00:14:21,961

이제 이 강의의 주제로 돌아보겠습니다.

92

00:14:21,961 --> 00:14:30,502

우리는 조선 후기의 종교사를 주로 역모 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심문 기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93

00:14:30,502 --> 00:14:41,247

전근대 유럽의 이단 심문과는 달리 조선시대의 심문은 피고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행위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94

00:14:41,247 --> 00:14:49,855

그러나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국가나 왕조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탱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95

00:14:49,855 --> 00:15:03,669

왕권은 천명을 받은 가문에 의해 계승되는 것이었고 통치자는 국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세계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해 간다고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96

00:15:03,669 --> 00:15:15,114

그런 사회에서 현재의 권력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기존의 질서가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거나 붕괴될 것이라 믿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97

00:15:15,114 --> 00:15:32,998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역모 사건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심문 기록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인 세계관이나 우주론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98

00:15:32,998 --> 00:15:44,510

지금까지 20세기 후반 서구의 역사학에서 심문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인류학적 역사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99

00:15:44,510 --> 00:15:52,217

그리고 그런 접근 방법이 종교사 연구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100

00:15:52,217 --> 00:16:07,666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역모 사건 자료에서 어떤 종교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29,329

지난 영상에서는 사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교적 상상력의 구조를 밝히는 종교사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2

00:00:29,329 --> 00:00:40,073

그러나 종교적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도식이 필요합니다.

3

00:00:40,073 --> 00:00:53,720

이런 이론적 도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각각의 종교적 실천이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의 범주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4

00:00:53,720 --> 00:01:00,326

바로 기복, 구도, 호구, 혁세입니다.

/

5

00:01:00,326 --> 00:01:07,033

우리는 앞서 종교를 인간과 세계를 상상하는 문화적 양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6

00:01:07,033 --> 00:01:17,277

그런데 이것이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면 종교란 어떤 대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일종의 노동이 됩니다.

7

00:01:17,277 --> 00:01:22,315

종교적 실천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

00:01:22,315 --> 00:01:27,887

하나는 개별 행위자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나 제도입니다.

9

00:01:27,887 --> 00:01:32,725

그리고 이런 대상을 변화시키는 방향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

00:01:32,725 --> 00:01:41,067

하나는 재생산의 방향 그러니까 원래의 온전한 모습을 최대한 회복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11

00:01:41,067 --> 00:01:49,409

다른 하나는 변형의 방향 즉 현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12

00:01:49,409 --> 00:01:56,249

이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적 실천이 지향하는 바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

00:01:56,249 --> 00:01:58,618

첫째는 기복입니다.

14

00:01:58,618 --> 00:02:06,759

일반적으로 종교가 기복신앙을 중시하는 것이 종교의 본령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5

00:02:06,759 --> 00:02:17,470

그러나 건강이나 풍요, 행운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의 타락한 형태가 아니라 종교사 전체에서 발견되는 대단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16

00:02:17,470 --> 00:02:25,345

이것이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굳이 종교적인 힘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이거나

17

00:02:25,345 --> 00:02:32,785

아니면 과학기술이나 사회 제도로 기본적인 욕구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조건 속에서입니다.

18

00:02:32,785 --> 00:02:41,661

우리의 도식에 의하면 기복은 대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삶의 물질 조건을 재생산하는 것을 지향하는 종교적 실천입니다.

19

00:02:41,661 --> 00:02:50,103

배불리 먹는 것이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기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20

00:02:50,103 --> 00:02:55,875

하지만 인간은 때로는 필요한 욕구 이상의 것을 욕망하기도 합니다.

21

00:02:55,875 --> 00:03:04,784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부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22

00:03:04,784 --> 00:03:14,928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라 기대수명 이상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 심지어는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런 욕망입니다.

23

00:03:14,928 --> 00:03:28,408

이것은 개체적 자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방식을 유지한 채로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때로는 넘치도록 만족시키려는 지향이기도 합니다.

24

00:03:28,408 --> 00:03:37,083

열심히 기도하면 조상이나 신의 도움으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기복에 속합니다.

25

00:03:37,083 --> 00:03:44,457

한편 우리가 처해 있는 존재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종교적 지향도 있습니다.

26

00:03:44,457 --> 00:03:47,360

이것을 구도라고 부릅니다.

27

00:03:47,360 --> 00:03:56,970

구도 지향의 종교적 실천들은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금욕을 통해서 욕망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28

00:03:56,970 --> 00:04:07,547

기복의 실천이 자아를 완전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데 비해서 구도의 실천은 마치 자아를 소멸시키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9

00:04:07,547 --> 00:04:13,586

여러 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신비주의적인 전통이 여기에 속합니다.

30

00:04:13,586 --> 00:04:18,157

이런 실천을 설명하는 교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1

00:04:18,157 --> 00:04:35,975

일례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작은 자 또는 가짜 자아라서 명상이나 기도, 수련을 통해서 큰 자아 또는 진짜 자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종교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2

00:04:35,975 --> 00:04:46,886

인간의 외부에 강력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33

00:04:46,886 --> 00:04:54,227

때로는 이런 구도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수행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34

00:04:54,227 --> 00:05:02,068

이런 공동체들은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몰입을 하죠.

35

00:05:02,068 --> 00:05:13,413

기복과 구도가 개별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적 실천이라면 호국과 혁세는 체제나 세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입니다.

36

00:05:13,413 --> 00:05:20,320

호국은 국가나 사회 체제, 지배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종교적 실천입니다.

37

00:05:20,320 --> 00:05:28,161

호국 지향의 종교적 실천들은 지금의 세계가 가능한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정당화합니다.

38

00:05:28,161 --> 00:05:37,737

만약 이 완전한 세상에 고통이나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39

00:05:37,737 --> 00:05:45,111

그래서 호국적인 실천은 세계를 끊임없이 태초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갱신하려고 합니다.

40

00:05:45,111 --> 00:05:55,355

마치 주기적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듯이 일정한 시기가 될 때마다 세상을 원래의 있어야 할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죠.

41

00:05:55,355 --> 00:06:03,029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적인 의례가 필요하고 통치자나 성직자가 그 사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2

00:06:03,029 --> 00:06:15,375

세상에 여러 존재나 사람들이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질서라고 주장하는 것도 호국적인 실천의 특징입니다.

43

00:06:15,375 --> 00:06:23,249

호국적인 실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44

00:06:23,249 --> 00:06:37,096

여기에서 안전하고 신성한 영역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바깥을 혼돈스럽고 위험하고 사악한 것으로 보는 다양한 상징 체제들이 나타납니다.

45

00:06:37,096 --> 00:06:46,672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자신을 둘러싼 체제나 세계를 전복하고 변형시키려고 하는 혁세의 지향입니다.

46

00:06:46,672 --> 00:06:56,582

호국의 지향에서 현실의 고통이나 사회의 문제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입니다.

47

00:06:56,582 --> 00:07:07,727

그런데 혁세 지향의 종교적 상상력은 이 세계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해결 방법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48

00:07:07,727 --> 00:07:13,666

그 방법은 기존의 질서를 단순히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 것일 수도 있고

49

00:07:13,666 --> 00:07:25,011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세우는 것일 수도 있는가 하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50

00:07:28,014 --> 00:07:37,657

종교적인 상징 체계나 행위에 이런 네 가지 지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

00:07:37,657 --> 00:07:50,536

이런 방식으로 종교적 실천을 분류하고 나면 얼핏 보기에 비슷하게 보이는 종교 현상도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2

00:07:50,536 --> 00:07:58,845

현상학적 종교 연구에서는 종교의 본질적인 차원의 궁극적 실재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53

00:07:58,845 --> 00:08:08,221

어떤 종교 전통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신이 될 테고 다른 전통에서는 우주적인 원리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54

00:08:08,221 --> 00:08:19,031

구도의 관점에서는 그런 궁극적인 실재를 이해하거나 신비적인 직관을 통해서 체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이 발달하게 됩니다.

55

00:08:19,031 --> 00:08:31,077

어떤 경우에는 궁극적 실재가 세계를 초월해 있어서 인간의 의식이나 언어로는 이해하거나 표현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언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56

00:08:31,077 --> 00:08:44,490

그런데 호국의 관점에서 실재는 세계 속의 특정한 자리에 정기적으로 임하거나 그곳에 늘 머물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세계 밖으로 물러나 있다고 여겨집니다.

57

00:08:44,490 --> 00:08:54,066

어느 경우에도 그 궁극적 실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정치적, 종교적인 권력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습니다.

58

00:08:54,066 --> 00:09:02,508

실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호하고 있는 권력 또한 절대적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9

00:09:02,508 --> 00:09:09,382

반면 혁세의 관점에 의하면 실재는 그런 종교적, 정치적 현실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60

00:09:09,382 --> 00:09:17,723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 실재는 체제 쪽이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는 예언자들의 편에 서 있다고 상상됩니다.

61

00:09:17,723 --> 00:09:31,470

신이 되었든 진리가 되었든 그것은 권력자들에 의해 독점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참칭하는 체제는 무너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62

00:09:31,470 --> 00:09:37,910

한편 기복의 관점에서는 궁극적 실재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63

00:09:37,910 --> 00:09:43,249

그런 것은 먹을 것을 주거나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64

00:09:43,249 --> 00:09:47,820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중시되기 때문에

65

00:09:47,820 --> 00:10:00,333

보이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궁극적 실재보다는 기복을 바치기 쉽도록 구체적인 모습과 인격을 갖춘 친근한 존재로 상상되곤 합니다.

66

00:10:00,333 --> 00:10:15,247

이 경우에 신적인 존재들은 궁극성이나 절대성, 초월성 같은 것보다는 인간의 수많은 관심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으로 나뉘어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67

00:10:15,247 --> 00:10:28,828

아이를 갖고 싶을 때는 어떤 신에게 빌고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신에게 빌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또 어떤 신에게 빌고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는 또 어떤 신에게 빌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68

00:10:28,828 --> 00:10:36,569

종교적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네 가지 서로 다른 지향이라는 도식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69

00:10:36,569 --> 00:10:43,242

호국의 차원에서는 현 체제의 안정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곧 악입니다.

70

00:10:43,242 --> 00:10:51,851

그래서 종교적 가르침도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고 선을 실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71

00:10:51,851 --> 00:11:03,329

그러나 구도의 시각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법이나 도덕보다는 자비, 평화, 타자와의 공감에 바탕을 둔 윤리 체계를 더욱 선호하죠.

72

00:11:03,329 --> 00:11:12,238

기복의 윤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호혜적인 교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3

00:11:12,238 --> 00:11:22,515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겁니다.

74

00:11:22,515 --> 00:11:28,087

혁명적인 세계관에서는 불평등이나 억압의 상태가 윤리적인 악으로 인식됩니다.

75

00:11:28,087 --> 00:11:36,762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방되고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죠.

76

00:11:36,762 --> 00:11:42,902

77

00:11:42,902 --> 00:11:49,842

기복을 위한 의례에서 금기는 정해진 절차를 틀리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78

00:11:49,842 --> 00:11:55,181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 타는 일을 피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79

00:11:55,181 --> 00:12:06,892

절차를 틀리거나 오염이 일어나면 기복적인 주술을 통해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죠.

80

00:12:06,892 --> 00:12:11,897

구도 지향의 실천에서도 지켜야 할 계율이 아주 많습니다.

81

00:12:11,897 --> 00:12:19,772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한다거나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지켜야 한다거나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죠.

82

00:12:19,772 --> 00:12:31,283

기복적인 의례에서도 비슷한 금기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재개라고 해서 제사 같은 것을 앞두고 있는 일정한 시기에만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83

00:12:31,283 --> 00:12:38,190

그런 금기를 지키는 것은 기복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이죠.

84

00:12:38,190 --> 00:12:54,006

하지만 구도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계율을 대단히 긴 기간 동안 심지어는 평생 동안 지키면서 자신의 실존적인 존재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85

00:12:54,006 --> 00:13:06,018

둘 다 욕망을 참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한쪽은 더 큰 욕망을 이루려고 다른 한쪽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점이 다릅니다.

86

00:13:06,018 --> 00:13:15,261

한편 호국 지향의 실천에서 금기는 주로 사회 질서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수호하는 데 집중됩니다.

87

00:13:15,261 --> 00:13:28,741

특정한 장소는 성스러운 곳이라서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지 왕이나 사제와 같은 고귀한 사람들과는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88

00:13:28,741 --> 00:13:36,482

혁세 지향의 실천에서는 그런 금기를 의도적으로 여기는 파격적인 행위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89

00:13:36,482 --> 00:13:50,362

이른바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고 정해진 형식에 반대하는 실천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퍼포먼스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90

00:13:53,365 --> 00:14:01,907

그런데 이 네 가지 지향은 그야말로 방향일 뿐이지 고정되어 있는 유형 같은 게 아닙니다.

91

00:14:01,907 --> 00:14:11,951

그래서 실제로 종교 현상들을 관찰해보면 이 방향들이 대단히 복잡한 방식으로 얹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2

00:14:11,951 --> 00:14:24,897

만약 이 도식에 사회 계층이나 권력관계라는 조건을 도입해보면 구도와 혹은 엘리트에 기복과 혁세는 종속 계층의 이해관계와 신화성을 가집니다.

93

00:14:24,897 --> 00:14:34,740

당장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종교적인 기복에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해당 사회의 하층민일 것입니다.

94

00:14:34,740 --> 00:14:47,319

반면에 당장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는 엘리트 계층일수록 욕망을 드러내고 진리를 추구하는 고도적 수련에 몰입할 수 있는 여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95

00:14:47,319 --> 00:14:58,764

또 호국적 실천을 통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미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엘리트 계층에게 이익이 됩니다.

96

00:14:58,764 --> 00:15:08,674

한편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종속 계층은 혁세적 실천으로 지금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것이 더 이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7

00:15:08,674 --> 00:15:19,318

그러나 실제로는 억압받는 계층이 자신들에게 분명히 불리한 현 체제의 유지를 위한 호국적 의례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98

00:15:19,318 --> 00:15:29,762

물질적 조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류층이 세계의 전복이나 종말에 대한 혁세적 신화에 열광하는 일도 흔히 일어납니다.

99

00:15:29,762 --> 00:15:38,270

또 정치권력은 흔히 호국적인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계급을 기복의 논리로 설득하곤 합니다.

100

00:15:38,270 --> 00:15:45,311

현재의 질서를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안전과 풍요가 보장될 수 있다는 레토릭이 대표적입니다.

101

00:15:45,311 --> 00:15:57,957

가끔은 구도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지배 체제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담론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02

00:15:57,957 --> 00:16:06,699

속세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수행 집단들이 정치 권력과 공생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103

00:16:06,699 --> 00:16:17,042

그리고 전문적인 종교 집단들은 기복적 실천의 고객을 엘리트 계층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104

00:16:17,042 --> 00:16:23,882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가 죽은 이후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은 좋은 상품이 됩니다.

105

00:16:23,882 --> 00:16:34,159

그리고 엘리트 계층이 원하는 권력은 늘 부족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엘리트 계층을 기복적 실천으로 끌어들이기에 좋은 미끼입니다.

106

00:16:34,159 --> 00:16:44,036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은 하나의 지향에서 이용되는 상징 자원이 다른 지향의 실천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107

00:16:44,036 --> 00:16:56,949

천년왕국 운동과 같은 혁세적 실천은 기존의 호국적인 세계관을 변형하거나 기복적인 민간 신앙의 요소들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자신의 언어와 행위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8

00:16:56,949 --> 00:17:03,255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혁세 지향의 집단이 제도화되거나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는

109

00:17:03,255 --> 00:17:12,598

지금까지 사용하던 상징들을 새로운 체제를 신성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호국적 담론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110

00:17:12,598 --> 00:17:20,406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언어나 행위들을 고정된 의미를 가진 무언가로 여기기보다는

111

00:17:20,406 --> 00:17:31,383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2

00:17:31,383 --> 00:17:40,859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사적 방법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종교적 구조를 실천의 지향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13

00:17:40,859 --> 00:17:46,698

이 도식은 종교사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렌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114

00:17:46,698 --> 00:17:58,143

다음 영상에서는 이 렌즈를 이용해서 어떤 자료들을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0:00:22,055 --> 00:00:33,733

앞선 영상들에서는 종교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읽어내려고 하는 종교적 실천의 지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

00:00:33,733 --> 00:00:45,412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살펴볼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9주차에 걸쳐 어떤 주제들을 다룰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

00:00:45,412 --> 00:00:53,053

이 강의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건들은 크게 변란이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4

00:00:53,053 --> 00:01:05,932

전근대 민중운동사 연구에서 변란은 농민들의 지역적인 항쟁이라는 성격이 강한 민란과 구분되는 종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저항을 말합니다.

5

00:01:05,932 --> 00:01:13,206

여기에서 종교적 상상력이란 왕조의 멸망에 대한 예언, 메시아적 인물의 도래에 대한 기다림,

6

00:01:13,206 --> 00:01:22,348

신적인 존재의 개입에 대한 기대, 의례적인 실천이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7

00:01:22,348 --> 00:01:36,129

근대 이후의 정치운동은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지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세상의 급진적인 변혁을 이야기하는 혁세 지향의 종교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8

00:01:36,129 --> 00:01:44,804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운동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보다 훨씬 거창한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9

00:01:44,804 --> 00:01:52,312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모의 단계에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10

00:01:52,312 --> 00:02:04,757

특히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당시의 지배 질서가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넓은 범위로 퍼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11

00:02:04,757 --> 00:02:18,471

정말로 죽창을 들고 한양 도성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국가나 세계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12

00:02:18,471 --> 00:02:28,882

그런데 이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시콜콜 기록을 남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13

00:02:28,882 --> 00:02:40,593

왜냐하면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애초에 글을 쓸 수 있는 인구가 대단히 적은 사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4

00:02:40,593 --> 00:02:47,767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학적 접근을 사용하는 종교사 방법을 공부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5

00:02:47,767 --> 00:02:55,241

조선시대에는 유럽의 이단 심문 기록에 해당하는 심문 자료가 대단히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16

00:02:55,241 --> 00:03:01,514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은 의금부의 추국 기록입니다.

17

00:03:01,514 --> 00:03:11,724

국가에 대한 반역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의금부는 국왕의 명으로 추국청이라는 임시 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8

00:03:11,724 --> 00:03:22,468

이 기간관서는 사건에 대한 고발장 접수로부터 체포, 조사, 심문, 판결, 처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19

00:03:22,468 --> 00:03:35,081

오늘날에는 17세기 이후 수백 건의 사건을 다룬 추국 기록만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역모 혐의 특히 종교적 요소가 강한 사건들만 해도 수십 건에 이릅니다.

20

00:03:35,081 --> 00:03:39,752

다만 이런 자료를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21

00:03:39,752 --> 00:03:46,859

전근대의 재판에서는 근대법에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2

00:03:46,859 --> 00:03:54,500

그리고 증거보다는 자백이 범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23

00:03:54,500 --> 00:04:03,743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져서 조선시대의 재판에서는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법적인 고문 즉 형신이 이루어졌습니다.

24

00:04:03,743 --> 00:04:09,048

사극에서 흔히 나오는 네 죄를 네가 알렀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25

00:04:09,048 --> 00:04:15,255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근대의 재판에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6

00:04:15,255 --> 00:04:27,233

형식은 최소한으로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가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련자들의 대질심문이나 증거물 확보 같은 절차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7

00:04:27,233 --> 00:04:35,608

그러나 국가와 왕조에 대한 반역 혐의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칙이 그다지 엄밀하게 적용된 것 같지 않습니다.

28

00:04:35,608 --> 00:04:47,787

대역죄인은 실제적인 무력 봉기만이 아니라 왕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불온한 의례 행위 같은 것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9

00:04:47,787 --> 00:04:58,498

그래서 여러 정황상 반역자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면 자백을 이끌어낼 때까지 혹독한 고문을 가하는 일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30

00:04:58,498 --> 00:05:05,104

이 경우 죄를 인정하면 사형이고 끝까지 죄를 부인하면 매를 맞다가 죽습니다.

31

00:05:05,104 --> 00:05:12,745

일단 추국장에 끌려왔다면 그리고 그대로 반역 혐의를 벗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32

00:05:12,745 --> 00:05:24,590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상대를 역모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33

00:05:24,590 --> 00:05:36,536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한국은 온갖 날조와 누명이 난무하는 무질서한 세상이었나 싶지만 여기에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있었습니다.

34

00:05:36,536 --> 00:05:49,415

바로 누군가 반란을 꾀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누명을 씌운 사람이 역모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법률입니다.

35

00:05:49,415 --> 00:05:57,657

실제로 많은 고발자들은 거짓 고변을 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처형되기도 하였습니다.

36

00:05:57,657 --> 00:06:09,402

이런 위험천만한 진실 게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그다지 간단하거나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37

00:06:09,402 --> 00:06:17,310

그래서 고발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했던 말이나 행위에 대해 대단히 상세한 진술을 하곤 했습니다.

38

00:06:17,310 --> 00:06:22,448

추국장에서 피고인들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했죠.

39

00:06:22,448 --> 00:06:30,390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역모 사건들 하나하나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40

00:06:30,390 --> 00:06:37,597

추국 기록은 그런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한 자료가 아닙니다.

41

00:06:37,597 --> 00:06:51,644

각 사건의 진상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시에든 논란의 대상이었고 많은 관련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밝히는 것은 보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2

00:06:51,644 --> 00:06:56,215

그러나 추국 기록은 종교사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43

00:06:56,215 --> 00:07:03,589

고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고발된 사람이 실제로 역모를 꾀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44

00:07:03,589 --> 00:07:16,636

그런 고발과 반론 그리고 대질 심문의 내용은 그 자체로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 반란에 대해서 상상했던 내용들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45

00:07:16,636 --> 00:07:26,345

다시 말해서 추국 기록은 실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기에는 역사학의 사료 비판을 통과하기 힘든 자료입니다.

46

00:07:26,345 --> 00:07:34,454

그러나 조선 후기 종교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가치 있고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7

00:07:39,392 --> 00:07:46,632

그렇다면 종교사적 관점으로 추국 기록에 나타난 변란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8

00:07:46,632 --> 00:07:51,804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9

00:07:51,804 --> 00:07:59,512

첫째는 세상의 급진적인 변혁에 대한 혁세 지향의 종교적 상상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50

00:07:59,512 --> 00:08:09,589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의 세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형될 것이라는 상상은 여러 가지 종교적 실천의 동기입니다.

51

00:08:09,589 --> 00:08:22,502

왜 인간 문화에서 이런 믿음이 폭넓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지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데 조선 후기의 변란은 좋은 자료가 됩니다.

52

00:08:22,502 --> 00:08:33,846

이것은 비슷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폭넓은 주제로 확장되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53

00:08:33,846 --> 00:08:42,722

둘째는 우리가 추국 기록을 통해서 제도 종교에는 잘 포착되지 않는 민간 신앙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4

00:08:42,722 --> 00:08:56,302

추국 기록은 죄인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지만 그것은 전근대 사람들 그것도 대단히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한 실명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55

00:08:56,302 --> 00:09:06,846

여기에 포함된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된 과거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6

00:09:06,846 --> 00:09:12,285

이것은 일종의 역사 민속학적인 탐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7

00:09:12,285 --> 00:09:20,726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종교적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58

00:09:20,726 --> 00:09:33,072

마지막으로 변란에서 나타난 종교적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한국 종교사 전체 특히 근대 이후 종교 운동에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59

00:09:33,072 --> 00:09:42,515

19세기 후반의 동학을 시작으로 근대 한국에서는 단군 계열, 증산 계열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종교 운동들이 발생했습니다.

60

00:09:42,515 --> 00:09:50,089

이런 종교들에서는 근대라는 새로운 환경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로부터 이어진 종교 문화의 지속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61

00:09:50,089 --> 00:10:04,604

민간 결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전근대의 종교적 변란은 이런 근대 신종교운동과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62

00:10:07,640 --> 00:10:20,386

2주차 수업에서는 조선 후기 변란의 연대기라는 주제로 추국 기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종교적 변란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간략하게 개괄하겠습니다.

63

00:10:20,386 --> 00:10:27,026

우리가 다룰 시대는 추국 기록이 남아있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인데요.

64

00:10:27,026 --> 00:10:37,036

이 수업에서는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의 주요 변동에 따라 이 기간을 다시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65

00:10:37,036 --> 00:10:46,779

이어지는 3주차 수업에서는 종교적 반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변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66

00:10:46,779 --> 00:10:52,718

여기에는 민간에서 전복이나 풍수지리 같은 술수를 업으로 삼던 술사들,

67

00:10:52,718 --> 00:11:04,864

왕조 교체 시기에 특히 주목받았던 불교의 승려들, 이단적인 사상에 매료되었던 선비들 그리고 몇몇 사건들에서 중요한 참여자였던 무당들이 포함됩니다.

68

00:11:04,864 --> 00:11:09,168

이어지는 4주차 강의의 주제는 예언과 예언서입니다.

69

00:11:09,168 --> 00:11:18,778

조선 후기에는 머지않아 국가의 멸망이 일어날 것이고 이씨 왕조를 대신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는 예언이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70

00:11:18,778 --> 00:11:25,985

이런 예언은 구전으로도 떠돌았지만 도참비기라고 불린 예언서들도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71

00:11:25,985 --> 00:11:36,429

추국 기록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정감록》 이외에도 수많은 제목이 붙은 다른 다양한 도참비기들이 언급됩니다.

72

00:11:36,429 --> 00:11:48,974

수업에서는 변란 사건에서 언급된 예언들 그리고 예언서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고 각각의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73

00:11:48,974 --> 00:11:54,146

5주차 강의는 진인 출현설의 형태와 변형들입니다.

74

00:11:54,146 --> 00:12:01,487

진인은 이씨 왕조를 대신할 새로운 통치 세력을 상징하는 메시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75

00:12:01,487 --> 00:12:08,761

앞서 이야기한 예언들도 많은 경우 이 진인의 출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6

00:12:08,761 --> 00:12:24,777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진인이 누구이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 반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7

00:12:24,777 --> 00:12:37,423

《정감록》에서 예언한 정씨의 진인이 가장 유명하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진인의 성씨가 정씨가 아닌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진인이 한 사람이 아닌 경우조차 있습니다.

78

00:12:37,423 --> 00:12:49,235

여기에서는 진인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영웅 신화에 대한 종교학적 연구들과 비교하면서 그 구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볼 것입니다.

79

00:12:49,235 --> 00:12:55,708

이어지는 6주차에서는 변란에서의 전복이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80

00:12:55,708 --> 00:13:00,646

조선시대 변란에서 술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1

00:13:00,646 --> 00:13:11,757

추국 기록에서 술사들은 주로 다양한 전복들 사주명리학, 관상, 천문 등과 같은 술수를 통해서 모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82

00:13:11,757 --> 00:13:24,403

여기에서는 그런 술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귀신을 부리거나 신비로운 기운을 살피는 것과 같은 흥미로운 술수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

00:13:24,403 --> 00:13:27,640

7주차 수업은 반역자들의 의례입니다.

84

00:13:27,640 --> 00:13:34,980

전근대 변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란 모의 과정에서 다양한 제사나 기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85

00:13:34,980 --> 00:13:43,889

여기에는 반란을 위한 비밀 결사의 결성과 가입을 위한 의례도 있고 산속에 들어가 반란의 성공을 비는 기원도 있습니다.

86

00:13:43,889 --> 00:13:50,763

이런 행위는 반역의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추국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87

00:13:50,763 --> 00:14:00,739

실제로는 아무런 무력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불온한 의도의 제사를 지냈다는 이유 때문에 반역죄로 처벌받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88

00:14:00,739 --> 00:14:08,9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란 참여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이런 의례를 행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89

00:14:08,948 --> 00:14:21,961

또 반란을 위한 의례를 했다고 고발당한 피고인들은 흔히 그 행위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론하곤 했습니다.

90

00:14:21,961 --> 00:14:26,799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91

00:14:26,799 --> 00:14:35,574

8주차에는 그런 의례 행위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것 바로 국왕에 대한 저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92

00:14:35,574 --> 00:14:41,680

통치자인 왕을 저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반역죄로 다루어졌습니다.

93

00:14:41,680 --> 00:14:48,787

실제로 전근대 동아시아의 법 체제에서는 저주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94

00:14:48,787 --> 00:14:55,761

그것은 저주의 효과를 실제로 믿느냐 아니냐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95

00:14:55,761 --> 00:15:08,974

이 수업에서는 왕에 대한 저주가 문제가 되었던 사례 세 가지를 통해서 변란 상황에서 저주하는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취급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6

00:15:08,974 --> 00:15:18,651

9주차에는 주제별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17세기 말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7

00:15:18,651 --> 00:15:29,461

미륵의 사도와 용왕의 딸이라는 제목대로 이 사건의 주모자인 미륵의 계시를 받은 승려와 용왕의 딸로 숭배받던 무녀였습니다.

98

00:15:29,461 --> 00:15:41,073

이들은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신자 집단을 모으고 세계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궁궐로의 침입을 시도하다가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99

00:15:41,073 --> 00:15:49,615

이 사건은 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100

00:15:49,615 --> 00:16:02,461

마지막 10주차에는 이 모든 주제별, 사례별 연구를 종합해서 조선 후기 변란에서 혁세적인 세계관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 있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01

00:16:02,461 --> 00:16:09,068

왜 변란 참여자들은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었던 것일까요?

102

00:16:09,068 --> 00:16:14,673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103

00:16:14,673 --> 00:16:21,981

또 말세가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104

00:16:21,981 --> 00:16:30,656

이런 물음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것으로 이 강의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105

00:16:30,656 --> 00:16:38,998

지금까지 이번 1주차 수업에서는 종교사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이 강의 전체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개괄해 보았습니다.

106

00:16:38,998 --> 00:16:42,768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

00:16:42,768 --> 00:16:54,446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란 불교나 그리스도교와 같이 제도화된 전통들만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을 상상하는 문화적 양식입니다.

108

00:16:54,446 --> 00:17:05,824

그리고 그런 상상의 형태가 시대나 장소에 따라 어떤 차이와 변화를 보이는지를 역사적 맥락과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 학문을 종교사라고 합니다.

109

00:17:05,824 --> 00:17:14,967

종교사는 근대 종교학의 중요한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이고 때로는 학문적인 종교 연구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110

00:17:14,967 --> 00:17:21,840

20세기 중반에는 종교사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방법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111

00:17:21,840 --> 00:17:27,946

한편에는 사회문화적 구조나 구체적인 사건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역사학 진영이 있었고,

112

00:17:27,946 --> 00:17:36,055

다른 한편에는 그런 개별적인 사건 너머에 있는 종교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상학 진영이 있었습니다.

113

00:17:36,055 --> 00:17:44,263

이들은 종교사에 있어서 사건과 구조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114

00:17:44,263 --> 00:17:54,506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미시사, 문화사 등의 이름으로 불린 새로운 역사학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15

00:17:54,506 --> 00:18:07,152

마치 인류학자가 민족지를 연구하거나 현지조사를 떠나는 것처럼 과거의 문화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확보하고 연구하는 것이 종교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116

00:18:07,152 --> 00:18:15,260

이런 인류학적 역사 연구가 도입되면서 역사학적 접근과 현상학적 접근은 더 이상 대립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17

00:18:15,260 --> 00:18:25,938

종교 문화의 구조와 사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이 먼저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관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18

00:18:25,938 --> 00:18:32,344

그런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자료가 바로 전근대 유럽의 이단 심문 자료였습니다.

119

00:18:32,344 --> 00:18:39,251

이 기록은 과거 사람들의 종교적 상상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일종의 민족지처럼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120

00:18:39,251 --> 00:18:46,024

이 수업에서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심문 기록인 추국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비슷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121

00:18:46,024 --> 00:19:00,172

그리고 단순히 사건 자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종교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틀로 기복, 구도, 호국, 혁세라는 종교적 지향의 형태들을 제시했습니다.

122

00:19:00,172 --> 00:19:11,450

추국 자료에 나타난 종교 현상들은 주로 혁세의 종교적 상상력과 관련되어 있지만 나머지 지향들도 복잡하게 엮여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23

00:19:11,450 --> 00:19:22,995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총 9개의 소주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변란 사건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

00:19:22,995 --> 00:19:25,864

감사합니다.